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

梁 京 柱 *

I

“소외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소외라는 용어는 개인과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칭하거나 표현하는 데 포괄적으로 두루 사용하고 있어서 그 용어의 개념은 오히려 그 사용빈도에 비례하여 더욱 애매모호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혼란만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소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Lewis Feuer같은 학자는 그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사회과학 용어로서는 소외라는 용어의 사용을 전적으로 포기하자고 주장한 바도 있다.¹⁾

이러한 문제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소외의 문제를 논의할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문학작품을 검토할 경우에도 소외의 개념은 그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애매모호한 채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 의미의 영역이 아주 제한되어 인물들의 고립이나 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Saul Bellow의 작품을 논하는 비평가들도 John J. Clayton과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²⁾ 대부분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공들이 바로 고립 속의 인물들로서 대화의 상대까지도 상실한 monologist들이며 사회적으로는 outsider들임을 언급하고 이와 함께 그들

1) Lewis Feuer, "What is Alienation? The Career of a Concept." *New Politics*, Vol. I, No. 3 (Spring, 1964). pp. 16-43.

2) John J. Clayton은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8)에서 주인공들의 소외의 양상으로서 고립과 고립감, 그리고 monologue라는 요소와 함께 주인공들의 피학적(被虐的) 성격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성적(性的) 죄의식과 자아상실을 논하고 있다. 본고에서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라는 소외의 양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성적 충동과 타락, 그리고 피학적 성질을 다루게 된 것은 그에게서 사사받은 것이다.

* 人文大學 助教授

이 겪는 고립감을 서술하는 것으로 소외에 대한 논의를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우 구체적이기는 하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외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설사 Bellow의 주인공들이 J. C. Levenson이

American literature is full of dangling men whose loose connection with actual, rooted institutions is what first lets them move into a story and whose easy uncommitted relation to specific ideals keeps the plot going. ...while the persistent character of Saul Bellow's novels is the dangling man, the old American hero has been reborn in a new time and a new situation; he dangles differently.³⁾

라고 말하여 지적인 “dangling man”으로서 고립을 겪고 있는 outsider들이며, 또 Tonny Tanner가

Bellow knows that 'dialogue, not monologue, is the foundation of a civilized life,' yet his own work, from his earlier stories to his latest novel, has presented us with a series of monologists whose most vital conversation is with themselves.⁴⁾

라고 말하여 지적인 monologist들이어서 주인공들의 이 두 가지 면모가 그들의 alienatee로서의 면모를 가장 분명하고 보여주는 소외양상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인공들의 소외양상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도 없으려니와 또 주인공들의 monologist로서의 면모와 outsider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도 단편적 언급만 되고 있어서 아직 체계적으로 분석·검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Bellow 소설의 주요 작품주제인 소외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하여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들의 여러 가지 소외양상 중 가장 두드러지고 공통적인 소외양상을 네개의 범주로 대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⁵⁾

II

Bellow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소외의 양상 중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비평가들 모두가 공통적

3) J. C. Levenson, "Bellow's Oangling Men," *Saul Bellow and the Critics* ed. Irving Mali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7), pp. 39-40.

4) Tonny Tanner, "The Flight from Monologue," *Herzog: Text and Criticism* ed. Irving How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6), pp. 445-46.

5) 본고에서 검토의 대상작품을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작품으로 한정된 것은 Bellow의 작품이 최근작품 *The Dean's December*(1982)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방대하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소외라는 그의 작품주제가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는 작품들을 통하여 하나의 cycle을 이루면서 발전·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고립이나, 이 고립은 제1차 집단인 가족성원들로부터의 고립과 제2차 집단인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말한다. 전자의 결과 주인공들은 monologist들이 되고 있으며, 후자의 결과 그들은 사회의 국외자(局外者)들이 되고 있다.⁶⁾

*Dangling Man*의 Joseph를 보면, 그는 그의 형 Amos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나 친구들과도 완전히 소원(疏遠)해져 있고, 또 그의 공동생활 영역을 완전히 상실하여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그의 전세방인 “six-sided box”에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며, 그의 부인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화단절의 상황하에서 일기를 씌으로써 일기 속의 “나”와 겨우 대화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내면세계의 “alter ego”인 “*Tu As Raison Aussi*”와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The Victim*의 주인공 Asa Leventhal은 조그마한 상업잡지사의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어서 의견 상 훌륭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회, 특히 백인사회로부터 끝없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의식은 그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크게 제한하고 있고 소극적이며 소원(疏遠)케 한다. 다시 말하면 Leventhal은 편집장 Mr. Beard나 영업부장 Mr. Fay와의 관계도 단지 생계를 위한 인간관계일 뿐이어서 그가 그 사회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의 형수 Elena나 조카 Mickey와의 관계도 그녀가 단지 형 Max의 부인이라는 데서, 그리고 그의 형이 없을 때 조카를 돌봐야 한다는 그의 가족애와 의무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더구나 Elena가 종교적으로 Catholic을 신봉하는 이탈리아 인이어서 이들 양자간에는 심각한 종교적·문화적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더구나 그의 부인 Mary가 친정으로 잠시 집을 떠나자 그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Leventhal도, 물론 그는 Joseph처럼 완전히 대화단절의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적절한 대화의 상대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가 활발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그가 Allbee와 이해하기 힘든 일련의 사건에 휘말려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와 Allbee와의 대화는 그가 Allbee와의 사건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방적 변호이며 항변일 따름이다. 그도 역시 외부세계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타인과의 얽힘의 관계를 가능한 한 세단하고 심지어는 거부하며,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던지고 되뇌이는 monologist가 되고 있다. 더구나 Jonathan Baumbach나 R. R. Dutton의 주장대로 Allbee를 Leventhal의 alter ego로 보게 되면⁷⁾ 그들 양자간의 대화는 Leventhal이 자기 자신

6) Melvin Seeman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일개인이 사회적 모용이나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 때문에 느끼게 되는 고독감이나 거부·거절의 감정이라 말한다. Melvin Seeman, “Alienation and Engagement.”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 A. Campbell and P. Converse (New York: Sage Basic Books, 1972), p. 473.

7) Jonathan Baumbach는 Kirby Allbee가 Asa Leventhal의 “alter ego”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R. R. Dutton은 J. Baumbach의 주장을 이어받아 Leventhal은 Allbee와 정신적·육체적으로 동일함을 보여 주고 있고, Leventhal은 alter ego인 Allbee를 만나게 됨으로써 괴롭고 고통스런 그 자신의 내면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한다. Jonathan Baumbach, *The Landscape of Nightmare: Studies in the Contemporary American Novel*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5), pp. 41-43. R. R. Dutton, *Saul Bellow*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1971), p. 46.

과 주고 받는 monologue가 된다.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의 Augie March는 Bellow 소설의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많은 인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고립의 상황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J. J. Clayton이 “Happy-go-lucky Augie March may seem an exception, but he, too, is an alienatee.”⁸⁾라고 말하여 시사하고 있듯이, Augie도 예외 없이 고립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Augie는 그의 “반골기질(opposition)” 때문에 그의 주의에서 끊임없이 그를 자신들의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인물들, 예를 들면 Grandma Lausch를 필두로 William Einhorn, Coblin부부, Renling부부, 형 Simon March, Thea, Stella, 그리고 Bateshaw 등 등의 계획을 거부하게 되고, 자신의 “better fate”를 찾아 편력(遍歷)을 계속함으로써 그 어느 누구, 그 어느 사회조직에도 자신을 맡기지 못 하며, 결국 제1차 집단에서도 제2차 집단에서도 고독한 outsider로 남게 된다. 소설의 말미(末尾)에서도 그는 아내 Stella를 Paris에 남겨둔 채 외톨박이가 되어, 이방인처럼 외로운 방황의 여행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처럼 활기에 차있고 적극적인 기질 밑바닥에 고립이라는 세계가 배태(胚胎)되어 있듯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여러가지 모험을 찾아 편답(遍踏)하는 활발하며 숨겨있는 화술가(話術家)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는 음울하고 회의적이며 자기 반성적인 monologist로서의 성격이 잠재되어 있다. 그의 이러한 일면은 그가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첫 머리에서 “I am an American, Chicago born—Chicago, that somber city—and go at this things as I have taught myself, free-style, and will make the record in my own way.”⁹⁾라고 연극의 방백(傍白) 수법을 빌어 말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그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며 그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따져보는 독백형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Seize the Day*의 주인공 Tommy Wilhelm 또한 고립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일부가 되고 있지 못 한 대표적 Bellow의 인물이다. 그는 인간관계가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New York의 금융가에서 그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따뜻한 가족애와 인간애 등의 정신적 유대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고집함으로써 주위의 인물들, 심지어는 그의 부친 Adler와 자신의 아내인 Margaret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고립되어 있다. 설사 그가 주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가 Dr. Tamkin이 그렇듯이 그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parasite”와 같은 인물들이며,¹⁰⁾ 또 그러한 목적하에서만 Wilhelm과의 인간관계가 이뤄진다. 그 자신도 그들의 등에 업혀 그의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려는 목적하에서 그들과 불가피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고립 속에서 Wilhelm이 그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아니, 그는 응

8) John J. Clayton, *Saul Bellow: In Defense of Man*, p. 60.

9) Saul Bellow, *The Adventures of Augie March* (Greenwich, Conn: Fawcett Publications, Inc., 1967), p. 5.

10) 拙稿,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Symbolic Death,” 『濟州大學 論文集』 第15輯, pp. 50-51 참조.

어리진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풀어줄 대화의 상대자조차도 찾아내지 못 한다. Wilhelm 또한 억압된 그의 감정을 시구절(詩句節)이나 되뇌이며 자신에게 토로하거나 주인도 알 수 없는 장례식장에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시체에 울음이나 터뜨릴 수 밖에 없는 전형적 고립 속의 인물이며 대화단절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다.

*Henderson the Rain King*의 주인공 Henderson도 예외는 아니다. 그도 일면에서는 Augie처럼 활기에 차있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고립을 겪고 있는 인물이며, 대화단절의 상태에 처한 monologist로서의 일면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Wilhelm처럼 육중한 몸에도 다소 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넘치는 힘을 주체치 못하여 좌충우돌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 쉰 다섯살이 넘은 나이에, 세금을 제하고도 삼백만 달러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아 생활에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그의 마음 속에는 생활의 무의함과 권태 그리고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새롭고 의미있는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욕구가 언제나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박한 욕구를 실현할 방법과 대화의 상대자를 찾지 못하여 좌절 속에 처해 있다.¹¹⁾ 이러한 좌절의 결과 그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I want.” “I want.”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그는 걸핏하면 부인과 다투거나 소동을 벌이며,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대화의 상대를 구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는 지하실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대화를 주고 받으며 미친듯이 바이올린이나 켈레는 인물이다.

Henderson이 고립에서 벗어난 인물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특히 Arnewi족의 Itelona Wariri 족의 Dahfu 왕 등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Henderson은 여전히 고립에 빠져 있는 인물이 된다. 왜냐 하면, 그의 아프리카 여행은 Nathaniel Hawthorne의 “Young Goodman Brown”에서 Goodman Brown이 겪게 되는 한 밤중의 숲속 여행과 같이 현실을 떠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정신적 여행이며, 그 인물들도 역시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우화적 의미를 갖고 있는 비현실적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Herzog*의 주인공 Herzog는 Joseph와 더불어 Bellow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monologist이며, 극한적 고립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한 때 장래가 촉망되는 철학박사이자 역사학 교수였으나 Madeleine과의 부부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되면서 절망과 좌절속에서 정신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정과 사회의 모든 외부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로 그가 한 때 Madeleine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장만했던 Ludenville에 있는 이제는 폐허가 되다시피한 커다란 고옥(古屋)에서 회상과 편지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실패와 좌절에 찬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가 이야기를 나눌 상대라곤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밤에만 울어주는 부엉이이며, 새벽에 울어주는 까마귀며, 저녁에 울어주는 티티새 뿐이다. 또한 실제로 발송되는 일이 없는 무수한 그의 편지는 결국 그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대답이고, 대화가 되고 있다.

11) Henderson은 이러한 욕구좌절의 상황하에서 그의 욕구실현을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난다. 그가 첫 부인 Frances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것도 양자간의 대화단절과 불능 때문이었고, 그가 Lily와 결혼하게 되는 것도 그녀가 그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그가 대화의 상대자를 구하려는 욕구 때문이었다.

III

Bellow의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소외의 양상 중에서 두드러진 두번째의 양상은 가치관념상의 고립이다. 이 가치관념상의 고립은 Melvin Seeman이 현대 산업대중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소외의 한 양상으로 지적 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거부”¹²⁾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그것은 사회나 다수집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념과 그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 한 개인의 가치관 내지는 사상 사이에 놓여 있는 좁힐 수 없는 상위관계(相違關係)에서 생겨난다.

Joseph를 보면, 그는 인간에 대하여 “...there is no limit to what a man be... A man was what he was born to be. Satan and Church, representing God, did battle over him... We were important enough... for our souls to be fought over.”¹³⁾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로서 현실을 Hobbes가 말한 대로 “불결하고, 야만적이고 저열(低劣)한” 곳으로 보며, 이 시대를 “an era of hardboiled-dom”이라고 규정하고, 이 현실이 그에게 강요하고 있는 하드보일드 파의 규율을 거부한다. 그는 이 현실이 아무리 불결하고 야만적이며 위협으로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plan”, 하나의 “ideal construction”에 의하여 현실을 개혁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그러한 계획의 하나로서 그는 그의 아내 Iva를 그의 계획하에 통제하여 그가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이상적 여성들, 즉 “Burckhardt’s great ladies of the Renaissance and the less profound Augustan woman”¹⁴⁾과 같은 여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그의 친구들에게는 그 규약(規約)이 “원한이나 포악, 잔인을 금하고 있는 집단”인 “a colony of the spirit”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였고, 또 Karl Marx의 이론에 따라서 이 세상의 전부를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한꺼번에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현실을 개혁하려는 계획, 다시 말해서 그의 이상주의를 실천하려는 그의 노력은 모두가 실패로 끝나게 되며, 그 결과 그는 그가 더럽고 야비스럽다고 여기는 이 현실과 현실사회의 가치관념으로부터 그의 이상적 자아와 가치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내실 속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Joseph처럼 가치관념상의 고립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이상주의적 인물은 Wilhelm이다. 그는 그가 처해 있는 New York 금융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인 물신(物神)주의적 황금만능주의의 가치관을 부정(否定)없이 수용하는 순응주의적 동조형의 인물들 속에서 화폐나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말하자면, 따스한 인간의 감정이나 가족애, 사랑 등의 것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고집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획일화를 지향하는 사회 속에서 그 획일화에 반항하여 자유를 추구하고, 자아와 영혼의 문제에 번민을 계속한다.

12) Melvin Seeman, “Alienation and Engagement,” p. 473.

13) Saul Bellow, *Dangling Man* (Penguin Books, 1944), p. 73.

14) *Ibid.*, p. 81.

그러나 이러한 Wilhelm의 가치관념상의 고립과 행동양식은 그를 부정적(否定的) 세력이 없는 일차원적 사회의 이상주의적 일탈자(逸脫者)로 나타나게 하며, 결국에는 Joseph의 경우처럼 그를 적응부재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의 사회적·경제적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Leventhal이나 Augie 그리고 Henderson이나 Herzog의 경우에도 Joseph나 Wilhelm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며 또 다소간의 정도의 차는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가치관념상의 고립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다.

Leventhal은 Joseph나 Wilhelm과는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그 자신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의 가치관념에 찬동을 하거나 동조를 하고 있지는 않다. 그는 언제나 사회와 사회의 관념을 일개인에게는 공격적이며 위협적인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또한 그는 항상 그러한 힘으로부터 위협과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와의 얽힘의 관계를 회피하고, 자신을 가능한 한 사회의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Augie는 이상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경험주의적 가치체계를 갖고 있다. 그는 먼저 “moha”가 지배하는 현실세계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인간의 존재를 실존적 존재, 즉 인간이 결코 만들지 않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파악하여, 자유의지와 선택에 의한 자신의 “better fate”와 “independent fate”를 추구할 것을 고집한다.

Augie의 이러한 가치체계는 결국 그로 하여금 그를 자신들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려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을 모두 거절하게 하며, 동시에 그에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거부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

Henderson은 Leventhal처럼 현실의 가치관을 수용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대치할 가치체계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그는 다만 현실 속에 내재해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과, 현실생활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갈구하고 있다.

Henderson의 이러한 욕구도 결국 Leventhal의 경우처럼 완곡한 형태의 가치관념상의 고립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Herzog인 경우 그의 가치체계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애 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소위 지난 시대의 유물인 “감정의 사탕발림(emotional goodies)” 즉 진실이니 우정이니 자식에 대한 헌신이니 흠뻑새나는 텅텅한 애정이니 하는 것을 고귀한 것으로 내세운다. 그는 자신이 현실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현실주의자들은 왜 잔인하게 되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fat gods”¹⁵⁾(物神)를 거부하며, 그렇다고 마스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바로 William Blake와 Rilke에 심취한 시인과 같은 존재다. 그는 자신의 집안의 가치기준인 “인정(heart)”을 교육받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는 바로 이러한 이

15) Saul Bellow가 “On Isaac Rosenfeld”에서 사용한 용어.

Irving Malin, *Saul Bellow's Fiction*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69), p. 9에서 재인용.

상(理想)에 따라서 그를 기만하고 배신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뒤를 돌봐 주고 감싸주고 진실로서 사랑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가치관은 한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결혼하여 그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Medeleine이나, 자신의 뒤를 돌봐주고 있는 친구의 부인과 정을 통하며 마침내는 온갖 간교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친구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 친구의 부인을 빼앗아가는 우정도 믿음도 인정도 없는 Gersbach와 같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에게는 전혀 통용되지가 않는다. 그의 고립과 정신적 사회적 파국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그의 가치관념상의 고립의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다.

IV

Bellow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두려진 소외의 양상 중에서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들은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이다.¹⁶⁾

Joseph의 현실감각은 그의 고립감이 깊어지면 깊어질 수록 그에 비례하여 와해 되어간다. 그는 외부세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갈 수록 그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이 현실세계의 시끄러움과 광열(狂熱)에 비례하여 그의 고립감은 깊어지며, 이러한 고독감은 그의 현실감각을 무너뜨리고 환상과 백일몽이 그를 사로 잡는다. 그는 현실감각의 상실 속에서 하루 하루가 그 특징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처럼 여기며, 요일(曜日)까지도 그에게는 의미를 잃고 무차별화되고 평균화되어 버린다. 그는 마침내 육체적인 고통과 마찬가지로 트러블(trouble)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 있음을 적극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

이러한 현실감각의 상실은 Joseph에게 그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 사회적으로 보상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없음을 절감케 하며, 그러한 통제가 외부적인 힘, 강력한 타자(他者), 운명, 등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는 그의 형 Amos에게 장래(將來) 같은 것을 누가 갖고 있는냐고 반문하며, 오늘 날과 같은 시대에는 개인적 선택이 큰 소리칠 여지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음을 절감하고, 사회 전체의 결정을 통하는 길 이외에는 현실을 믿을 길이 없으며 이 결정으로부터 자신이 이탈하게 되면 자신은 건전성과 신뢰를 잃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Continued life means expectation. Death is the abolition of choice. The more choice is limited, the closer we are to death."¹⁷⁾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자유와 독립된 자신의 운명을 갈구하던 Joseph

16) Melvin Seeman은 이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이 바로 사회 속의 일개인이 현실의 역동성(力動性)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으며, 무력감은 일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사회적 보장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미래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이 Seeman의 대중 사회의 소외양상에 대한 이론은 Bellow 주인공들의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에 훌륭하게 적용된다. Melvin Seeman, "Alienation and Engagement," p. 472.

17) Saul Bellow, *Dangling Man*, p. 122.

도 결국 그 자신의 결정책임 즉 그의 선택권과 자유를 모두 포기하여 모든 것을 타인과 사회에 맡겨 버리고 만다.

Leventhal 현실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사는 “거대한 맹목적 움직임”일 뿐이라는 결정론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는 Allbee의 말대로 그러한 세계 속에서 개인이라는 존재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있을 뿐이며,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단체와 조직이며, 개인은 벌써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이 현실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여지가 없는 세계일 뿐이다. 그는 이러한 세계 속의 인간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중충한 겨울날의 햇빛을 받으며 빈민구호소의 벤치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걸터앉아 거기서 주는 커피나 기다리는 사람들, 때가 묻은 베개, 마분지에다 페인트를 발라 나무벽처럼 보이게 한 답답한 침실 그리고 그가 실직하였을 때 “lower Broadway”의 한 호텔에서 목격했던 인생의 실패자들 — 갈 바를 잃은 사람, 부랑자 패잔병, 파산자들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온 세상의 중량에 의하여 짓눌리고 있는 듯한 감정에 사로 잡혀 있다.

Leventhal의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은 Allbee와 애매모호하고 부조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더욱 커져간다. Leventhal은 Allbee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사는 모든 것이 난장판이고 우연적이며 되는 대로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세상사를 움직여가는 자는 누구냐 하는 의문을 계속 품고 있다.

Augie는 Bellow의 인물들 중에서 현실을 파악함에 있어 모든 이론과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이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물론,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이 세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특유한 현실파악 이론이며 계획이 되고 있지만, 그는 경험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의하여 다른 인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있다.

Wilhelm은 Bellow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의 가치체계를 고집함으로써 가장 심각하게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에 사로 잡히게 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Wilhelm은 사회적 고립과 가치관념상의 고립 속에서 이 세계는 혼미스럽고, 또 도처에 “the Tower of Babel”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곳이며, Perls의 말대로 이 세상은 미친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제정신인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란스런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가해의 상황하에서 그는 점차 현실감각을 잃게 되며, 또 갈피를 잡지 못해 당혹해 하는 그에게 암흑과 혼돈만이 겹치고 덮치고 있음을 느낀다. 이처럼 점증(漸增)하는 암흑과 혼돈의 상황하에서 Tamkin은 그에게 “Bring people into the here-and-now. The real universe. That's the present moment. The past is no good to us. The future is full of anxiety. Only the present is real—the here-and-now. Seize the Day.”¹⁸⁾라고 말하여 Wilhelm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이 세상을 이해하려들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고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그의 가치체계를 붕괴시키고, 결정적으로 그를 심리적 아노미

18) Saul Bellow, *Seize the Day* (Penguin Boks, 1956), p. 72.

(*anomie*)¹⁹⁾의 상태로 몰아 가고 있다.

또한 Wilhelm은 가치체계의 붕괴와 심리적 아노미의 상황하에서 자아가 분열되고 “identity의 감각”²⁰⁾을 상실하고 있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가치규범의 파괴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와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 identity를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의 진정한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가짜 영혼과 진짜 영혼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번민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Wilhelm이 현실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과 중력감이다. 그는 불가해한 현실과 충돌하여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면서도 잡을 수 없을 때와같은 무력감, 마치 과도에 벗어나서 멀리 밀려나는 공을 잡으려다 실패한 때와 같은 감정을 느끼며, 생존하는 것 그 자체가 큰 혹이나 짐과 같이 그에게 하나의 중력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낀다.

Henderson은 현실에 대하여 불가해의 감정을 다소 갖고 있으나 무력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정력이 넘치고 있는 인물이며 활기에 차 있는 인물이다. 그의 불가해의 감각은 삶을 왜소화 시키고 무의미하게 하는 현실과 죽음에 대한 거부(拒否)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는 그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여행한다. 다시 말하면, 그 여행은 삶과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정 속에서 진리,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구하기 위한 여행이 되고 있다.

Herzog야말로 분명한 그의 이론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며,²¹⁾ 그 결과 그 어느 인물보다도 좌절과 실의 속에 현실감각을 상실하고 생(生)의 불가해함을 절감하는 인물이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그의 좌절과 함께 Madeleine과의 이혼 사건으로 그가 세워놓은 사랑이니 감정이니 하는 가치체계가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 함을 절감한다. 그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파국에 직면하여 폐허가 된 고옥(古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조용히 과거와 현재의 학자, 정치가 등등, 유명·무명인들에게 인생과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세워놓은 인간에 대한 이론체계를 점검하려 하고 있다.

19) “*anomie*”라는 용어는 Emile Durkheim에 의하여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었거나 행위의 법칙으로서 더 이상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지만 본고에서의 “심리적 아노미”는 “재래의 가치규범이 가지는 개인의 신념체제와 사회적 규범 사이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심리적 이탈(逸脫, deviation)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김대환, 『社會學』, (서울: 法文社, 1983), pp. 269-97의 “心理的 아노미” 참조.

20) Erik H. Erikson이 *Identity: Youth and Crisis*에서 “고무적(鼓舞的)인 동일성의 주관적 감각과 계속성의 주관적 감각”이란 의미로 쓰인 용어. Erik H. Erikson, 『아이덴티티』, 曹大京 譯 (서울: 三省出版社, 1977), p. 192.

21) Herzog는 de Tocqueville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건의 평등화에 관한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발전, 즉 민주주의의 진보를 전제로 용납하면서 20세기의 모든 혁명이나 대중적 동요와 소란을 해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 좌절은 그의 사회적·가정적·파국의 원인이 된다.

V

Bellow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네번째의 두드러진 소외양상은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이다. 이 불안은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이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신경증적 증세는 Karen Horney가 말하고 있듯이 문화 중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가치를 개인적으로 조정하고 내사(內射, introjection)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²²⁾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부조정(不調整)에서 생긴 “안정체계”의 붕괴상태라 할 수 있다.

Bellow 주인공들의 이러한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는 주로 죽음과 죄악에 대한 강박관념과 피학적(被虐的) 성격,²³⁾ 백일몽과 환각, 충동적 성격이나 사건, 사소한 일에 보이는 과민반응,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나 몸가짐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

Joseph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죽음과 죄악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그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죄악 특히 성적(性的) 죄악감에 사로 잡혀 있다. 그는 자신의 어릴적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두개골을 연상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으로 여긴다. 그는 또 도서관 옆길을 돌아가려다 손발을 옆으로 뻗은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도 그 사나이는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고, 다시 어머니의 죽음과 이어진다. 이 쓰러진 사나이의 죽음은 완전히 그를 사로 잡아서 머리가 아파오고 Iva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다. 꿈속에서도 죽음은 그를 사로 잡는다. 그는 대량 학살된 시체 중의 하나를 어느 가족의 부탁을 받아 인수하러 갔던 꿈을 꾸고 있다.

또한, 그는 죄악감에 사로 잡혀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죄악에 대한 강박관념은 주로 자신이 마음 속에 내재(內在)해 있는 타락의 가능성과 그의 성적충동(性的衝動)과 성적타락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와 과오를 의식하게 됨으로써 생겨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지 않는 자신의 악(惡)을 의식하며, 인간이란 존재가 커다란 선의(善意)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서로 살상하는 역할을 맡지 않으면 안되며, 우애롭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조차도 매질 행위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의식 속에는 항상 누구의 가슴 속이나 쏟아져 내리는 악과 더불어 동시에 자신의 내부에 숨어 보이지 않는 악과 타락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악과 함께 그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의 성충동과 성적 타락이다. 왜냐하면 그의 타락의 가능성은 이 양자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성충동은

22) S. Stansfeld Sargent 『社會心理學』 梁會水 譯 (서울:乙酉文化社, 1979), p. 54에서 재인용.

23) Saul Bellow가 그의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물들이 피학증(masochism)을 갖고 있음은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비평가를 예로 들면 J. J. Clayton과 K. M. Opdahl을 들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필자가 주인공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강박관념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나 성적(性的) 죄악에 대한 부친 등으로부터의 처벌과 연결시켜 그들의 피학성을 설명한 것은 바로 J. J. Clayton의 견해에서 시사받은 것이다.

형수 Dolly에 대해 느끼는 음욕(淫慾)과 그의 조카 Etta를 그의 다리사이에 끼워놓고 맨손으로 볼기를 치는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의 성적(性的) 타락의 가능성은 Kitty와 정사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Joseph의 피학적 성격은 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의 죄의식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자신의 내재악(內在惡)에 대한 처벌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특히 그는 죽음을 그의 부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패한 그의 인생과 그의 성적죄악에 대한 부친이 내리는 처벌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의식할 때면 그 밑바닥에는 항상 지옥과 그의 부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

Joseph의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의 백일몽과 환각 그리고 사소한 것에 보이는 신경과민 반응을 들 수 있다. Joseph는 한 겨울에도 햇볕이 비치는 벽만을 고집시키고 주위의 얼음은 무시한 채 지금은 2월이 아니라 7월이라고 납득시키며, 마찬가지로 여름을 뒤집어 겨울로 바꾸고 있는 한 더위속에서 추위 부들부들 떨 수도 있는 환각 속에 빠진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부친을 연상케 하는 길거리에 쓰러졌던 사나이가 죽음의 사자(使者)가 되어 나타나는 백일몽에 잠기고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신경과민 반응은 Etta를 구타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Iva와의 언쟁 등으로 계속되며 Vanaker와의 소동으로 절정에 달한다.

Leventhal의 경우는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가 어떤 막연한 위협적 외부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피해를 의식하는 데서 그리고 사소한 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그는 아내 Mary가 집을 나간 후부터 신경의 침착성을 잃게 되어 조그마한 소음에도 신경이 곤두서서 그것이 벨소리인지, 라디오 소리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소리인지 불안해 한다. 욕탕에는 밤새도록 불을 켜두는가 하면 잠든 사이에도 무엇인가 놀랜 듯한 생각이 들며, 생쥐가 벽을 따라 달리고 있는 것을 본 듯한 느낌마저 갖게 된다. 그가 공원을 걷다가 낯선 사나이가 자신을 노려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을 때도 불안과 공포에 사로 잡힌다. 두 팔이 덜덜 떨리고, 가슴도 불안하여 떨리고 있음을 느낀다.

Leventhal은 이러한 불안과 과민반응 심리와 함께 죽음과 죄악 특히 성적(性的) 죄악에 대한 공포와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다. 그의 경우도 Josep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성적충동, 특히 근친(近親)에게 느끼는 음욕(淫慾)때문에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처벌로서 죽음을 의식하며 두려워 하고 있다.

Leventhal은 성충동에 사로 잡힌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눈에 비치는 여인들은 성충동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조카 Mickey를 만나 보러 갔을 때도 그는 건너편 집에 있는 속옷만 걸쳐 입은 여자가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점심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내려 갈 때도 같이 타고 있는 상업학교 여학생들의 맨들맨들 윤이도는 팔과 얼굴을 몰래 바라본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Nunez부인을 보고도 엉덩이만 징그러울 정도로 크고, 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고, 어깨가 올라가서 가슴이 높고, 입술은 심호흡을 했을 때처럼 벌려있다고 생각한다. Allbee가 창녀를 Leventhal의 아파트로 데리고 들어와 동침을 하다가 그에게 발각되었을 때도 Leventhal은 Allbee가 나체로 서있고 그 옆에서 반라(半裸)의 여인이 허겁지겁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가 Nunez 부인이라고 단정한다.

Leventhal은 그의 형수 Elena로부터도 강한 성충동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Mickey를 돌보기 위하여 그녀를 찾아 갔을 때도 그는 그녀가 의자 위에서 옷을 아래로 내려 놓으며 까만 머리칼을 흘뜨린 채로 두 팔을 벌려 자기 몸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음에 크게 마음을 쓴다. 한 여름인데도 그는 커튼을 내리고는 조카 Piliph에게 맥주를 사오게 하여 Elena와 남아 있으려 한다. 차마 그는 아내 Mary가 2, 3주 예정으로 친정에 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을 하면 혹시 자고 가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누가 찾아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가 Allbee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Allbee가 무엇인가 비밀을 알고 있는 듯이 희죽이 웃어 보이며 “자네 부인은 지금 집에 없어, 자네 부인은…”하고 말을 하자 Leventhal은 혹시 그가 자신이 Elena에 대하여 품고 있던 음흉한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 한다. 더구나 그의 Elena에 대한 성적(性的) 유혹감이 그의 모친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Elena를 자신의 모친과 서로 닮은 데가 있다고 여기며, 또 닮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이상상태에 이른다.

Leventhal도 Joseph처럼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죽음을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와 그의 죄악에 대하여 가하지는 하나의 처벌형태로 받아들인다. 그는 그의 조카 Philip과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노과학자가 수년전에 애인을 죽인 극장 휴게실에서 그 애인을 닮은 젊은 배우에게서 애인의 환상을 보고 교살하려는 장면을 보자 신경이 과민해서 화장실로 나와 버린다. 사격장에서 탈각 탈각하는 최소리를 들어도 불안감을 느낀다. 또 그는 상점에서 단지 “죽음”이라는 말만을 듣고도 불안을 느끼며, 그 “죽음”이라는 말이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상점을 나온 후까지도 그 “죽음”이라는 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Augie는 Bellow의 다른 인물들에 비하면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를 극복하고 있는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도 현실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불안은 그를 위압하고 제약하는 현실이 갖고 있는 어떤 큰 힘, 다시 말하면 “어둠(darkness)”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힘을 의식함으로써 생겨난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둠을 우주의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근원처럼 비인간적인 아시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 같은 어둠이며, 북해(North Sea)와 Thames강과 Westminster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그 어둠은 그 속에서 뭔가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어둠이며, 단순히 어느 지방의 어둠이 아니라 뜨거운 Messina의 밝은 빛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어둠으로, Augie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제각기 에벤 동산을 떠나서 속박·공통·왜곡·죽음을 통하여 다시 그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

Augie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강하게 보여 준다. 그는 죽음을 처음에는 카리스마적으로 어린 시절의 그를 지배해오던 Lausch 할머니가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고 있음과, 또한 그의 어린시절 그를 사로 잡았고 그가 영웅적 인물로 받아들였던 Einhorn도 가끔 죽음에 사로 잡혀 있음을 깨닫는 데서 의식하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죽음을 인간의 존재조건으로 그리고 그의 선택의 영역을 넘어서 있어서 그의 가능성과 위대성을 제한하고 또 왜소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절대적인 커다란 힘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그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과 함께 이러한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은 Thea와의 멕시코 여행과 그 자신이 Bateshaw와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체험하게 됨으로써이다. 그는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고문대나 머리털은 썩지 않은 채 살만이 썩어내린 두개골이 피랏밋 대신에 길가에는 개·쥐·말·당나귀의 시체가 널려있고, 세(糞)넨 무덤으로부터 기한이 차서 파내진 뼈들이 거리에 쌓여 있음을 보게 되며, 문을 연 가게에서 파는 관들은 마치 여자의 형태를 야비하게 비웃는 듯이 놓여 있고 검은색, 흰색, 회색 등 갖가지 크기의 관 뒤에는 육중한 죽음의 가장자리 장식인 Sapolio 은빛으로 채색되어 있음을 보면서 이러한 광경들은 모두가 죽음이 이런 아름다운 곳곳에서 얼마나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은 도처에 편재(遍在)해 있고 인간의 거역할 수 없는 일부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와 함께 그는 Bateshaw와 구명정(救命艇)상에서 벌인 사투에서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게 되고 죽음을 체험하게 된다. 이 사건은 결국 그를 괴롭혀 온 죽음이 그 자신에게 다가와 있으며 그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Wilhelm의 경우 그의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는 먼저 그의 몸가짐과 행동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비싼 옷을 입고 있으나, 외모나 복장은 형편이 없어서 더럽고 옷 매무새는 헝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었으며, 호주머니에는 잡다한 것들, 말하자면 각종 환약병이나 비벼끈 담배꽂초 그리고 셀로판 노끈이나 잇수시계로 사용하는 빨간 테이프 노끈 등이 잡다하게 들어 있다. 또 식사 전에는 우유나 주스를 마시는게 보통인데 커피나 콜라를 마시며, 손톱이 더럽게 자라 있는가 하면 세수도 제대로 안고 전기면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삶은 제란을 손으로 잡으면 뱀자국이 보일 정도로 불결하다.

그의 과민반응 형태로 나타나는 행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는 Adler와 대화할 때도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안절부절 어찌 할 바를 모르며, 안면과 손가락에서는 자신도 알지 못 하는 경련이 일어나며, 두발은 마치 급히 집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에 묻은 흙을 매트에 문질러 떨어내거나 하듯이 발을 앞뒤로 문지른다. 또한 그는 어느 정도 냉정을 유지하다가도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쉽게 격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와 함께 Wilhelm의 불안이나 신경증적 증세는 그의 지나친 약물복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지금 그의 정신이나 육체를 약의 힘을 빌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고, 또 약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오히려 그런 약들이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즉 Wilhelm은 갈등과 불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각성제를 먹고나서 곧 진정제를 먹어야 하고, 또 진정제를 먹은 다음에 이내 흥분제를 먹어야 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고 Pervitin이나 Benzedeine을 먹어도 잠이 깨지않는 상태에 있다.

또한 Wilhelm은 Bellow의 인물들 중에서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로서 피학증상(被虐症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인물이다. 즉 그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

이는 인물이다.

Wilhelm은 배우가 되려는 그의 행위가 마치 무슨 무기라도 집어들고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을, 그리고 Margaret과의 결혼도 고생을 사서 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Tamkin과의 동업(同業)도 그렇고, 또 그의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Tamkin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고민과 결혼한 사람”, “이 세상의 고민과 고생에 몸을 바친 사람”이 되고 있다.

Wilhelm의 피학적 성격은 자신의 삶의 고통을 흡족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의 인생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직시하지 않고 잊으려 하다가는 정말로 잊어버릴 우려가 있으며, 그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사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는 자신의 특수한 업(業)을 짊어지고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껴가며 억누른 눈물을 맛보는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에 찬 인생을 흡족하게 음미하고 있다. 그는 슬픔과 고통에 이별을 고하기 보다는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Henderson은 그의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를 마음 속에서 끊임 없이 계속되는 “I want, I want”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정신적 과민상태에서 보여 주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눈물과 광증의 나날”과 크고 작은 소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과대망상과 강박관념을 통하여 보여 준다.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강박관념은 Bellow의 어느 주인공 보다도 심각하고 병적(病的)이다. 그는 Lily와 남불(南佛) Vermilion으로 갔을 때 한 해양 박물관에서 이마에는 얼룩반점이 있고 Brown 운동을 하며 움직이는 문어를 들여다 보고 그를 괴롭히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임을, 그리고 그가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 왔음을 깨닫게 된다. 그에게 그 문어는 그 가운데서 그가 죽어가고 있는 우주의 차가움을 전해 주는 죽음의 사자(使者)로 나타나게 되며, 그는 “이것이 나의 최후의 날이다. 죽음이 나에게 그 고지서를 내놓은 것”이라고 여긴다. 이후 그의 행동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 내지는 탈출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자신에게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를 선언한다.

“Oh, shame, shame! Oh, crying shame! How can we? Why do we allow ourselves? What are we doing? The last little room of dirt is waiting. Without windows. So for God's sake make a move. Henderson, put forth effort. You, too, will die of this pestilence. Death will annihilate you and nothing will remain, and there will be nothing left but junk. Because nothing will have been and so nothing will be left. While something still *is*—*now*! For the sake of all, get out.”²⁴⁾

그의 아프리카 여행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도피이며 필사의 탈출이 되고 있다. 그는 도피 속에서 죽음과 불가피하게 다시 죽음 문제에 얽혀 들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Dahfu왕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를 끝내고 있다. Dahfu왕은 Henderson으로 하여금 죽음과 직면케 하고 죽음을 체험케 함으로써 그가 그렇게 피해 온 죽음이 끝내

24) Saul Bellow, *Henderson the Rain King* (Penguin Books, 1959). p. 40.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조건이며, 삶의 일부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Herzog의 경우 불안고 신경증적 증세는 무엇 보다도 그의 우울증과 피학증상(被虐症狀)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우울증은, 물론 다른 그의 소외의 양상도 그렇듯이 그가 Madeleine과의 이혼 사건을 고비로 하여 절정에 이르게 된 그의 사회적·가정적·정신적 파국에서 생겨나고 있지만 그는 학자답게 자신의 정신적 상태와 그의 정신적 상태를 말해주는 자신의 우울증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우울증 환자라고 말하면서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소년시절의 추억을 버리지 못 하는데 있는데, 자신은 소년기의 쓰라렸던 고통마저도 잊지 못해 한다고 지적한다. 또 그는 Kierkegaard의 책을 읽으면서 “For dying means that it is all over, but dying the death means to experience death”²⁵⁾라는 귀절을 보고는 이 귀절이야말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읽기에 제격의 글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우울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학적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자기 연애적이며, 피학대성 변태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는 Bellow의 인물 중에서 Wilhelm 못지 않게 피학적인 인물이다. 그의 피학적 일면을 나열하면, 그는 고통을 참는데 야릇한 만족감을 느끼는 자이며, 여자들에게 혼이나는 것을 즐기는 자이고, 남에게 이용당하기를 고대하며 희생을 바치는 길을 교시해 주기를 갈망하는 자이다. 또한 그는 고민을 할 때면 밑바닥까지 고민을 하는 자이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 보며, 자신이 내부에 몽둥이질을 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시덤불 위에 앉아 피를 흘리며 그 고통 만족감을 맛보거나 즐거이 고민하는”자고 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가 가정적이고 온순한 Sono를 버리고 공격적인, 어떤 면에서는 가학적(加虐的)인 Madeleine을 택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의 피학적 성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그는 Madeleine의 부정(不貞)과 그녀와 Gersbach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뒤를 계속 돌보아주고 방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심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몰락을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의 피학적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I

지금까지 필자는 Bellow 소설의 중심적 주제인 소외의 문제를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밝혀 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써 *Dangling Man*에서 Herzog에 이르기까지 작품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을 크게 넷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Saul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은 크게 사회적 고립, 가치관념상의 고립,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외

25) Saul Bellow, *Herzog* (Penguin Books, 1964), p. 111.

의 양상은 소외를 겪고 있는 인물들인 주인공들에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외의 양상 중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사회적 고립이다. 이 사회적 고립은 제1차 집단인 가족성원들로부터의 고립과 제2차 집단인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말하는데, 전자의 결과 고립을 겪고 있는 인물들인 주인공들은 monologist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의 결과 social outcast로서 나타나고 있다.

Bellow의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두드러진 소외 양상 중 두번째의 것은 가치관념상의 고립이다. 이 고립은 사회나 다수집단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념이나 사상적 체계를 거부하거나 이와 대립되는 자신의 가치체계를 고집하고 나서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Bellow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소외양상 중에서 특징적 소외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념상의 고립은 주인공들이 이상주의적 면모를 갖고 있다는 데서 분명해진다.

세번째로 두드러진 소외현상은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이다. 이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은 현실감각의 상실, 다시 말하면 주인공들이 현실의 역동성(力動性)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으며, 무력감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미래가 어떤 외부적인 힘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

넷째의 두드러진 소외양상은 죽음과 죄악에 대한 강박관념, 피학적성격, 백일몽과 환각, 충동적인 과민반응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이다. 이 불안은 주인공들의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신경증적 증세는 K. Horney의 말대로 문화 중에서 발견되는 모순된 가치를 개인적으로 조정하고 내사(內射)하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기대 사이의 부조정(不調整)에서 생긴 “안정체계”의 붕괴상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Bellow 주인공들이 보여 주는 이 네가지의 소외양상은 모두가 그 중 하나인 가치관념상의 고립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사회적 고립이나 현실에 대한 불가해의 감각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과 신경증적 증세는 바로 주인공들의 이상주의적 가치체계의 주장과 파괴라는 바로 가치관념상의 고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Bellow 주인공들의 소외를 보다 심층적이고 소외의 양상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가능성은 주인공들의 소외동인(動因)이 그들의 이상주의를 실천하려는 욕구의 좌절이나 또는 이상주의라는 욕구의 좌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상황으로서의 현실이라는 욕구좌절의 상황에 있으므로 그들의 보여주는 여러가지 소외양상을 욕구좌절의 상황에서 보여 주는 부적응(不適應, inadequate adjustment)의 사례, 즉 행동의 기제(defense mechanism)로 설명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필자가 앞서 제기한 문제, 즉 소외라는 용어의 개념을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나, 또 지나치게 제한하여 단지 고립과 고립감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의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Bellow의 소설에 나타난 소외의 특징적 일면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The Aspects of Alienation in Saul Bellow's Novels

Yang Kyoung-zoo

As a preliminary measure for explaining the theme of Bellow's novels—alienation—the writer of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alienation of Bellow's heroes. The results of this examination are as follows:

1. The important and distinctive aspects of their alienation can be divided into 4 categories, that is, (1) social isolation, (2) value isolation, (3) sense of incomprehensibility and powerlessness, and (4) anxiety and symptoms of neurosis.

2. Among these aspects of alienation, social isolation is most striking. This social isolation consists of heroes' isolation from primary groups and that from secondary groups. As the result of the former the heroes become monologists, and as the result of the latter social outsiders.

3. Heroes' value isolation is caused by their disapproval of the value system or ideology of society or by their adherence to their idealistic value systems.

4. Their third aspect of alienation is the sense of incomprehensibility and powerlessness. The sense of incomprehensibility is caused by their disability to grasp the dynamics of society and to forecast their future. Their powerlessness is caused by their thoughts that they can not anticipate personal or social recompense for their deeds and that their future is under the control of certain external, social power.

5. Their fourth aspect of alienation is their anxiety and symptom of neurosis. This aspect is shown through the heroes' obsession of death and sin, daydreams and hallucination, and impulsive hypersensitiveness.

6. In the above results, we can find a characteristic feature of their alienation, in that their alienation, namely all the aspects of their alienation are caused by their value isolation. In other words, it is clear that their alienation is brought about not by the social factors but by their idealistic value systems.